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3 pp. 470-475, 2021

https://doi.org/10.5762/KAIS.2021.22.3.470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와 고용
-외국은행과 국내은행 비교를 중심으로-

이상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Banking Service Automation and Employment
-Focused on the differences between Foreign-owned Banks and Local Banks-

Sang-Wook Le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Korea

요 약 본 연구는 외국은행에서의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가 은행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국내 은행과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 지를 분석하였다. 외국은행은 은행 자동화기기 확대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 측면에서 국내은행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국은행은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에 따라 비정규직 뿐 아니라 정규직에서도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할 가능성을 보인 반면, 국내은행은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에 따라 비정규직 인력에서 구조조정 발생 가능성을 보이는데 그쳤다. 외국은행은 책임자급이상 정규직을 중심으로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국내은행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국은행은 책임자급이하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서는 국내은행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와 인력 구조조정 측면에서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은행산업의 고용 정책, 은행 업무의 자동화, 외국은행의 차별적 경영전략 등에 대해 정책당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the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anking service automation and employment by bank ownership type. We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structuring of the labor force and increasing banking service automation between foreign banks (owned by foreign capital) and local banks. Foreign banks showed the possibilities of reducing the regular labor force through the increase in banking service automation. However, banking service automation in local banks has reduced only the number of irregular employees but increased regular employees. This paper suggests new evidence on the differences between foreign and local banks in banking personnel management with the increase in banking service automation.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preceding research areas of banking, business, and governance. In addition, this paper provides important insights on banking service automation, employment, and foreign banks for banking managers and policymakers.

Keywords : Bank Ownership, Foreign Bank, Bank Corporate Governance, Banking Service Automation, Employment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2A01037704)
이 논문은 한국은행의 재정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Sang-Wook Lee(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email: leesw@seoultech.ac.kr
Received January 27, 2021 Revised March 2, 2021
Accepted March 5, 2021 Published March 31, 2021

1. 서론

은행은 양질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업으로 청년층으로부터 취업 선호도가 높은 업종이다. 은행 등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취업 선호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용에서 은행 등 금융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은행 등 금융서비스업의 근무 종사자 수는 2016년까지는 매년 증가 하는 추이를 보여왔으나, 2016년 이후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은행 등 금융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고용 수요와 선호 간의 미스매치 문제 해결을 위해 은행 등의 고용 확대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은행 업종 등의 고용 감소 추이는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와의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다. 은행은 ATM 도입 확대 등으로 은행 서비스 업무의 자동화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왔다.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는 은행의 인건비용 감소 등을 통한 은행 수익성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 업무 자동화는 은행의 인력 운용 부담을 감소시키면서 은행의 고용 수요 감소를 유발시켰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가 은행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는 은행의 전체적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는 은행 서비스 업무의 질적 제고를 통해 은행의 양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는 비정규직 또는 하위 직급의 인력 수요는 감소시킬 수 있으나, 양질의 서비스 수행을 위한 인력에 대한 고용 수요는 오히려 증가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인력 직급 등에 따라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는 은행 고용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은 소유지배 자본 특성에 따라 은행 경영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erger et al.(2008)은 외국 소유자본 지배 은행은 은행대출 행태, 은행경영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국내 은행들과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하였다[1]. 외국 소유자본 지배 은행의 국내은행과 차별화된 경영 및 대출 행태는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와 고용의 관계에서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자본 지배 은행은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인력 조정 등에 국내은행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은행은 비용 절감 측면에서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가 발생하는 상위 직급을 포함하여 인력 구조조정 등에 적극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내은행은 인력 조정 등에 저항이 낮은 비정규직 또는 서비스 자동화와 직접 연관성이 높은 창구직 등 하위직을 중심으로 인원 감축 등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외국은행은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에 따른 인력 조정에서 국내 은행과 차별적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은행의 서비스 업무 자동화와 고용의 관계는 은행 직급별 및 비정규직 여부 등에 따라 국내은행과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은행의 서비스 업무 자동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 은행과 차이가 있는 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 은행 직급 및 비정규직 여부 등의 관점에서도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와 고용의 관계에서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차별적 특성을 가지는 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외국은행은 외국자본이 지배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SC은행, 씨티은행, 그리고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자본이 소유 지배한 한국외환은행을 포함한다. 이들 외국은행들은 외국자본이 실질적으로 은행을 소유하고 경영인을 선임하고 있는 등 외국인 투자지분율이 단순히 높은 일반 시중은행들과 차별적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에 대한 대용변수는 은행 ATM기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 지표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점포수로 나누어 점포당 자동화기기 대수로 은행 업무의 자동화 지표로 산정한다. 은행의 고용지표는 은행별 인원수로 산정하되, 설명변수와 동일한 단위로 표준화하기 위해 점포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본 연구 2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등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실증분석 모형과 결과를 소개하며,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2. 관련 선행연구

은행 업무 자동화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가운데, 은행 자동화기기가 은행 성과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은행 자동화기기가 은행 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존재하고 있다. 이덕훈(2008)은 은행의 자동화기기 확대가 은행 비용 감소 및 경영성과 개선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2]. 김우진(2015)은 은행 자동화기기 대수는

은행의 점포 통폐합 및 구조조정 등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였다[3]. 그는 은행의 자동화기기 관련 수수료가 은행 자동화기기 관련 수익성과 밀접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주희(2006)는 1998~ 2004년 기간 중 은행 산업의전체 인력은 감소한 것은 하였으나, 은행 자동화기기 도입, 비정규직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4].

은행은 소유지배 자본 유형에 따라 경영 및 대출행태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Berger et al.(2008)은 외국은행은 국내은행과 비교해 대출행태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1]. 그들은 외국은행은 정보비대칭성이 낮은 기업과의 대출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Mico and Panizza(2006)은 은행의 소유지배 자본 유형에 따라 은행 대출의 경기 순응적 행태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5]. Sapienza(2004)는 은행 소유지배 자본 유형에 따라 은행들의 대출 이자비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6]. Classen and Horen(2014)은 은행 산업에서 외국은행의 존재 및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7].

3. 실증분석

3.1 연구모형 및 방법

본 연구는 외국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와 고용 관계 분석을 위해 패널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은행과 국내은행의 차이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외국은행은 외국자본이 실질적 소유 및 경영권을 행사하는 SC, 씨티, 한국외환은행을 포함하였다.

은행 고용은 은행 직원 수를 이용하였다. 은행 직원 은 점포수로 나누어 표준화하였다. 이와 같이 표준화한 것은 은행 규모 및 점포 수 등이 은행별 직원 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은행 직원변수는 은행 정규직원(EBr), 비정규직원(TeBr)로 구분하였으며, 은행 정규직원(EBr)은 다시 직급별로 책임자급이상 정규직원(EcBr), 행원급 정규직원(EeBr)로 세분하였다.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는 은행에 대한 개별 자료가 공개되는 은행 ATM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은행 자동화기기는 전기의 은행 자동화기기를 점포수로 표준화하여 산정한 변수($AtBr_{t-1}$)를 이용하였다. 전기의 은행 자동화기기 변수를 이용하여 은행 직원 변수와 시차를 두고 분석한 이유는 은행 자동화 기기와 은행 직원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상호 인과관계 문제를 완화하고 은행 자동화기기가 은행 직원 등의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존재할 시차 등을 감안한 것이다[1].

은행 자동화기기와 고용 간의 관계가 외국은행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외국은행 여부 더미(Fb)와 설명변수와의 교차변수(Fb_AtBr)을 설정한다. 외국은행 여부에 따라 은행 자동화기기가 은행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경우 교차변수(Fb_AtBr)가 유의한 수준의 부호를 보일 것이다.

통제 변수로는 은행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하였다. 은행 경영성과(roa), 은행 규모(size), 은행 위험(risk) 등에 따라 은행의 인력운용 전략이 달라 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변수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은행 경영성과(roa)는 은행의 총자산대비당기손익, 은행 규모(size)는 총자산의 로그 값, 은행 위험(risk)는 총여신대비 고정이하여신비율로 산정하였다.

또한 은행 자동화기기 이외에 은행 업무의 자동화 요인 등이 은행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은행업 일평균 인터넷뱅킹 이용건수(ibbk), 은행업 일평균 모바일뱅킹 이용건수(mbbk) 등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일평균 인터넷뱅킹 이용건수(ibbk), 은행업 일평균 모바일뱅킹 이용건수(mbbk) 등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였다[2].

본 연구는 2003~2016년 기간 분기별 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실증분석을 실시한다[3]. 하우즈만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변동효과와 고정효과 모형을 검증한 결과 고정효과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에는 고정효과 모형결과와 함께 모형적합성 검증결과도 제시한다. 또한 은행별 개별요인 통제이외에 패널자료 구성에서 존재할 수 있는 시차별 자료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시간더미(timedum)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 설정하였다. 이상 내용을 정리한 연구모형 및 변수 설명은 다음 모형 (1) 과 Table 1.로 정리하였다.

1)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존재하는 상호 인과관계를 완전히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설명변수에 시차를 설정한 목적도 있다.

2) 인터넷뱅킹, 모바뱅킹 이용건수는 은행업종 일일 평균 자료는 있으나, 개별 은행들에 대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은행 자동화기기 이외에 은행 자동화 변수 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은행업종 전반의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이용건수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한 것이다.

3) 2017년 이후 은행 자동화기기 추이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실증분석 자료의 한계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y(EBr, EcBr, EeBr, TeBr)_{i,t} = \alpha_0 + \alpha_1 AtBr_{i,t-1} + \alpha_2 Fb_AtBr_{i,t-1} + \alpha_3 roa_{i,t} + \alpha_4 size_{i,t} + \alpha_5 risk_{i,t} + \alpha_6 ibbk_t + \alpha_7 mbbk_t + timedum_t + \epsilon_{i,t} \quad (1)$$

Table 1. Variable and Description in the Model

Variable Category	Variable	Description
Depen-dent Variable	EBr	Regular full-time Employee/Branches
	EcBr	Person in Charge/Branches
	EeBr	Regular employee below the level of in-charge/Branches
	TeBr	Temporary Employee/Branches
Independent Variable	$AtBr_{t-1}$	ATM/Branches
	Fb_AtBr_{t-1}	Interaction variable with foregn bank dummy and $AtBr_{t-1}$
Control Variable	roa	Net income /Total assets
	size	Total assets
	risk	None performing loan ratio
	ibbk	Daily average internet banking transactions
	mbbk	Daily average mobile banking transactions
	timedumy	Time dummy

3.2 실증분석 결과

Table 2.는 은행 자동화기기와 정규직원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은행 자동화기기 추정계수(AtBr-$_1$)는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부호를 보이는 반면, 외국은행과 은행자동화기기의 교차변수에 대한 추정계수(Fb_AtBr-$_1$)는 유의한 수준에서 음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Table 2.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Bank Service Automation and Regular Full-time Employee

Variable	Coef.	P>|t|
$AtBr_{t-1}$	**432.39*** **	**(0.000)**
Fb_AtBr_{t-1}	**-2,714.0*** **	**(0.005)**
roa	1.834	(0.000)
size	1.115	(0.193)
risk	-23.482	(0.352)
itbk	0.000	(0.890)
mbbk	0.000	(0.844)
상수항	포함	
반기 더미	포함	
Within-R^2	0220	
Number of Obs.	442	
Hausman test	Chi2 = 57.56, Prob 〉 Chi2 = 0.000	

Note: 1) ***, **, * denote 1%, 5%, 10% levels of significance, respectively.
2) The P-value of two-tail test is reported in parentheses.

국내은행은 점포당 자동화기기가 증가에도 불구하고 점포당 정규직원 인력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은행은 은행자동화기기 증가에 따라 국내은행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국은행은 은행 자동화기기 증가에 따라 저규직 인력의 감소 가능성을 보였다. 국내은행은 은행 업무 자동화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인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외국은행은 은행 서비스업무 자동화로 정규직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Table 3.은 은행 자동화기기와 책임자급 이상 정규직 인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은행 자동화기기 추정계수(AtBr-$_1$)는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부호를 보이는 반면, 외국은행과 은행자동화기기의 교차변수에 대한 추정계수(Fb_AtBr-$_1$)는 유의한 수준에서 음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국내은행의 경우에는 자동화기기 증가에도 불구하고 책임자급 이상 정규직 인력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외국은행은 은행자동화 기기 증가에 따라 책임자급 이상 정규직 수 변화에서 국내은행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국은행은 은행 자동화기기 증가에 따라 책임자급이상 정규직 인력을 감소할 가능성을 보였다. 국내은행은 은행 서비스업무의 자동화로 책임자급 이상의 정규직 인력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외국은행은 은행 서비스업무 자동화로 책임자급 이상 정규직원에 대한 구조조정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Bank Service Automation and Regular Person in Charge Employee

Variable	Coef.	P>|t|
$AtBr_{t-1}$	**211.3*** **	**(0.043)**
Fb_AtBr_{t-1}	**-2,144.2*** **	**(0.012)**
roa	1.991	(0.000)
size	-0.855	(0.258)
risk	-55.509	(0.013)
itbk	0.000	(0.978)
mbbk	`0.000	(0.956)
상수항	포함	
반기 더미	포함	
Within-R^2	0233	
Number of Obs.	442	
Hausman test	Chi2 = 49.44, Prob 〉 Chi2 = 0.000	

Note: 1) ***, **, * denote 1%, 5%, 10% levels of significance, respectively.
2) The P-value of two-tail test is reported in parentheses.

Table 4.는 은행 자동화기기와 행원급(책임자급 이하 직급) 정규 직원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은행 자동화기기 추정계수($AtBr_{-1}$)는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부호를 보이는 반면, 외국은행과 은행자동화기기의 교차변수에 대한 추정계수(Fb_AtBr_{-1})는 유의하지 않은 수준에서 음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국내은행은 자동화기기 증가에도 불구하고 행원급 정규직 인력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행원급이하 정규직에서는 외국은행은 은행자동화기기와 직원과의 관계에서 국내은행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행원급 이하 정규직에서는 은행자동화기기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 외국은행 모두 행원급 직원 수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Bank Service Automation and the Regular Employee Below the Level of in-charge

Variable	Coef.	P>|t|
$AtBr_{t-1}$	221.1***	(0.000)
Fb_AtBr_{t-1}	-569.8	(0.194)
roa	-0.157	(0.340)
size	1.969***	(0.000)
risk	32.027***	(0.006)
itbk	0.000	(0.724)
mbbk	0.000	(0.747)
상수항	포함	
반기 더미	포함	
Within-R^2	0.320	
Number of Obs.	442	
Hausman test	Chi2 = 67.28, Prob 〉 Chi2 = 0.000	

Note: 1) ***, **, * denote 1%, 5%, 10% levels of significance, respectively.
2) The P-value of two-tail test is reported in parentheses.

Table 5.는 은행 자동화기기와 비정규직과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이다. 은행 자동화기기 추정계수($AtBr_{-1}$)는 유의한 수준에서 음의 부호를 보이는 반면, 외국은행과 은행자동화기기의 교차변수에 대한 추정계수(Fb_AtBr_{-1})는 유의하지 않은 수준에서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국내은행은 자동화기기가 증가에 따라 비정규직의 인력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외국은행의 경우에도 국내은행과 차이를 추정하는 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은행과 같이 은행 자동화기기 도입에 따라 비정규직의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은행은 은행 자동화기기 도입에 따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외국은행에서도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Bank Service Automation and Temporary Employee

Variable	Coef.	P>|t|
$AtBr_{t-1}$	-142.6***	(0.009)
Fb_AtBr_{t-1}	57.39	(0.897)
roa	0.552***	(0.001)
size	1.466***	(0.000)
risk	17.13	(0.144)
itbk	0.000	(0.846)
mbbk	0.000	(0.934)
상수항	포함	
반기 더미	포함	
Within-R^2	0.636	
Number of Obs.	442	
Hausman test	Chi2 = 9.29, Prob 〉 Chi2 = 0.054	

Note: 1) ***, **, * denote 1%, 5%, 10% levels of significance, respectively.
2) The P-value of two-tail test is reported in parentheses.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외국은행 관점에서 은행 서비스업무 자동화와 은행 고용 관계를 분석하였다. 외국은행은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기기 증가에 따라 국내은행과 인력 운용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는 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외국은행은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기기 증가에 따라 국내은행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국은행은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기기 증가에 따라 정규직 및 비정규직 모두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반해 국내은행은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기기 증가에 따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규직 직급별 분석에서는, 외국은행은 책임자급 이상의 정규직에서 은행 자동화기기 증가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을 보인 반면, 국내은행은 은행 자동화기기 증가에도 불구하고 책임자급이상 정규직 인력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을 보였다.

외국은행은 은행 자동화기기 증가에 따른 인건비 감축

등을 위해 인건비가 많이 발생하는 상위직 정규직을 포함한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내은행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반해 국내은행은 은행 자동화기기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이 낮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외국은행과 인력운용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책당국 및 기존 연구 등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가 은행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고용정책당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 등 금융서비스 업종에 대한 고용 수요와 취업 선호도 간에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가운데, 은행산업 자동화가 은행 고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와 관련된 외국은행과 국내은행의 경영행태 차이 등은 고용정책 측면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내은행과 외국은행의 은행경영 행태의 차이 분석을 통하여 외국은행과 국내은행에 대한 차별적 정책방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외국은행은 국내은행과 달리 책임자급 이상의 인력구조조정을 활발히 진행하는 반면, 국내은행은 비정규직 인력의 구조조정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외국은행과 국내은행에 대한 차별적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은행산업의 기술혁신에 따른 은행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4차산업 혁명, 핀테크 확대 등 은행 업무 자동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흐름에 비추어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연구에 새로운 논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기술혁신과 은행 경영, 외국은행과 은행 경영 등에 대해 많은 연구 및 정책적 논의 등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1] D. H. Lee, "Cost Efficiency Anlysis in Korean Banking Industry",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Vol.15, No.3, pp.17-40, 2008.

[2] W. J. Kim, "The Proposal on Reconstructing Banking Service Automation", *Financial Focus*, Vol.24, No.19, Seoul, Korea, pp.1-2, 2008.

[3] J. H. Lee, "The Change of Banking Industry Employment After the Financial Crisis", *Presentation Papers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pp.287-288, 2006.

[4] A. N. Berger, L. F. Klapper, M. S. Peria, R. Zaidi, "Bank Ownership Type and Banking Relationship", *Journal of Financial Intemediation*, Vol. 17, pp.37-62, 2008. DOI: https://doi.org/10.1016/j.jfi.2006.11.001

[5] A. Micco, U. Panizza, "Bank Ownership and lending behavior", *Economic Letters*, Vol. 93, No.1, pp.248-254, 2006. DOI: https://doi.org/10.1016/j.econlet.2006.05.009

[6] P. Sapienza, "The Effects of Government Ownership on Bank Lending",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72, pp. 357-385, 2004. DOI: https://doi.org/10.1016/j.jfineco.2002.10.002

[7] S, Classens, N. V. Horen, "Foreign Banks: Trends and Impact",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 46, pp. 295-312, 2014. DOI: https://doi.org/10.1111/jmcb.12092

이 상 욱(Sang-Wook Lee) [정회원]

- 2002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06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1993년 3월 ~ 2008년 2월 : 한국은행
- 2008년 3월 ~ 현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금융기관경영, 회계